설정 스님 "임기 내 五戒운동 확산"

교계기자 간담회서… 본사별 학교 운영 견해도

지난해 10월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설정 스님이 임기 내에 오계(五戒)운동 확산에 매진할 것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1월 4일 교계기자 간담회서 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불교정신이 사회에 퍼지도록 임기 내 오계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은 "현재 우리사회는 어떻게 살자는 정신이 없다. 이를 보완하는 데 불교정신만큼 바람직한 것은 없다"면서 "사찰에서 포살을 하듯이 불자들에게 맞는 포살방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불교정신으로 산다면 가정과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스님은 신라시대 화랑정신과 조선시대 선비정신 등을 예로 들고 "불자이면서도 오계를 중심으로 한 불교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오계는 보이지 않는 복과 덕을 만들어가는 좋은 바탕"이라며 "지식이 모자라서 사회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인간이 갖춰야할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해서다. 밝고 바른 마음을 위해 오계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설정 스님은 각 교구본사가 일반학교를 운영해 교육 요람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동남아시아 불교국가 대부분은 사찰에 학교를 두고 학생들을 키워낸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어 바른 인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한국불교도 최종적으로는 교구본사마다 학교를 두고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설정 스님은 낙태 · 존엄사 등 각종 사회 생명윤리문제에 불교계가 응답할 수 있는 종단차원의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비구니종회의원들에게 종단 불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비구니종회의원들, 성역화기금 1000만원

계환 스님 "비구니 역할 잘 수행하겠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소속 비구니스님들이 총본산 성역화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계환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비구니종회의원들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고, (재)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새해덕담을 통해 "앞으로 종단이 할 일이 많고, 그 가운데 비구니 역할이 크다. 불사를 해나가는 데 비구와 비구니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며 "갈등과 반목의 배경은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우리 모두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스스로 문제없고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계환 스님은 "총무원장선거 공약에서 비구니 역할을 강조하셨다. 단순한 역할 수행 당부와 자리 마련은 차이가 있으니 신경 써주시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구니종회의원들은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인 혜광원의 직할교구 해제를 요청했다. 붕괴 위험에 처한 혜광원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동국대서 모연중인 기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상권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달식에는 사서실장 진우 스님, 비구니종회의원 계환 · 지홍 · 지성 · 명준 · 도수 · 묘주 · 혜수 · 혜범 · 희유 · 혜정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종교인 과세〉

기도 · 불사비 사찰 통장에 관리

조계종 재무부, 종교인 소득세 유의점 안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통장 미변경 시 소득 오인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어
소임공제 프로그램 개발 중
안거 해제비 등 신고 않기로

지난 1월 1일자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기도비 · 불사비 등을 주지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해온 사찰은 사찰명의로 변경 관리해야 한다. 개인소득으로 오인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유승)는 최근 배포한 '사찰예산편성 지침 안내문'에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사찰회계 처리 지침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사찰재정을 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해온 곳 모두 사찰명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 재정관리 통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 및 과세대상 소득은 직무수행비(교역직종무원급여)와 기타 부정기적 보시금 · 법사비 · 강의비 · 출연료 · 원고료 등이다. 신고는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활동비 중 종무활동비로 판공비 · 차량지원비 · 출장비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소득은 종단 소임공제를 통해 집행하고, 사찰회계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단 종무활동비는 종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과 사찰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 시 종단을 통하지 않고 사찰이 직접 집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담보된다. 다만 사찰이 스님에게 직접 계좌로 송금하고 소득신고 하지 않을 시 사찰회계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종단을 통해 소임공제를 집행할 경우, 각 사찰은 내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종단에 제출하고 종단소임비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이후 종단이 지출 증빙을 사찰에 송부한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소임공제 전담인력을 구성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과 함께 이달 내 소임공제 프로그램을 개발, 소임공제 신고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추후에는 단계적으로 사찰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기능도 추가된다. 사찰은 소임공제 지급명세서 보관철을 만들고, 소임비 지급 사찰명의 농협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한편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도 소득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이 수정된 만큼 조계종은 그 범위를 종무활동비로 한정했다. 승단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는 '수행수용비'로 분류해 소득신고 하지 않기로 종무회의서 결의했다. 안거 해제비 · 거마비 · 목욕비 · 병원지원비 · 학인 교육비 · 수행처 임시소임자 지원 최소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는 기재부와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조계종이 누차 입장을 전해온 사안으로 당초 기재부 역시 이해했던 부분이다.

종단 관계자는 "기재부와 이미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단 입장은 변함이 없다. 소득이 아닌 승단 유지에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문제 삼는다면 종단차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행수용비는 종단 소임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사찰서 스님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대중생활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현금지원 후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수행수용비는 승려의 법계 및 대중생활 규모, 사찰 결산등급 등을 고려해 사찰 내부서 결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재무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2)2011-1890

직무수행비 신고대상

-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 교구본말사 주지 및 국 · 과장급
- 수행처 정기 소임비 (방장 · 회주 · 선원장 · 부전 등)
- 교육기관 학장 · 교수
- 사찰 부속기관 소임비 (템플스테이 국장 · 박물관장 등)

템플스테이가 평범해?… 이젠 '수행'이다

갑사 · 백담사, 무문관 · 간화선 템플스테이 마련

사찰예절, 108배, 발우공양…. 전국 어느 사찰이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라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와 진득하게 불교를 느끼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두를 위한 '수행 템플스테이'가 잇달아 열린다.

공주 갑사(주지 탄공)는 수행문화 확산과 템플스테이 다양화를 위해 1월 19일부터 '온전한 나와의 만남, 무문관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무문관 템플스테이는 무문관의 시초인 천축사에서 갑사 대자암까지 이어지는 전통 무문관 수행법을 일반인에게 맞게 개발한 것이다.

2박3일 기본과정과 4박5일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는 무문관 템플스테이는 매회 일반인 8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과정은 무문관 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도법사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참가자에게 적합한 수행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으며, 매월 3주차 금요일부터 시작된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자 중 깊이 있는 수행을 원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도법사스님과의 수행상담이 필요하다. 심화과정은 오는 4월부터 3주차 월~금요일에 운영된다.



갑사 무문관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대적선원 설경.

갑사 주지 탄공 스님은 "자기수행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이 선 수행을 통해 온전히 자신과 만나고, 깨친 마음을 바로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041)857-8921

인제 백담사(주지 삼조)는 1월 26부터 4박5일 과정의 '간화선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유나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지도법사스님들과 참선, 걷기명상, 발우공양, 운력 등 수행을 함께한다. 특히 화두참선법과 수심교행선, 개별 인터뷰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는 등 집중적인 지도가 제공된다. (033)462-5565 **윤호섭 기자**

"산업환경 변화, 불교도 대비를"

설정 스님-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회현안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방을 받고 4차 산업과 인구절벽 등 사회 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먼저 이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문제는 무산됐지만 앞으로의 교육 과제가 더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향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얼마 전 동국대서 4차 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 교육계서는 암기와 답습을 중심으로 한 현재 학교교육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화두"라고 운을 뗐다.

설정 스님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지시는 할 수 있지만 변화 주체는 전문가들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다른 현안으로 인구절벽을 꼽았다. 이 교육감은 "내년까지 초등학교 신입생이 소폭 늘지만 202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어 2030년이면 지금의 3분의1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설정 스님은 "지금까지의 인구문제 해결이 한쪽만 포인트를 맞춘 헛수고였다. 젊은 세대들이 5포, 7포라고 하는데 환경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혼부부가 맞벌이 아니면 집도 못 사는 세상이다. 과감한 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